

진화하는 호남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첨 사업 방향과 성과

산학연·기업간 네트워킹, 참여기업 '생산 4배'

미국 실리콘밸리·스웨덴 시스타 등을 모델로 한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광주 첨단·구미·창원·반월시화 등 7개 시범지역으로 시작된 클러스터 사업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되면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초기 단지 내 사업에 그쳤던 클러스터가 광역과 광역을 묶는 초광역권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호남권 광역 클러스터 사업 방향과 성과, 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의 우수 사례 등을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5개 거점단지, 34개 연계단지 협력

산업단지는 한국경제의 산업화와 국민생활 개선의 일등공신이다. 농경이 발달한 호남권에서는 역할이 더욱 컸다. 여수산단은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정유 생산기지로서 국가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광주첨단·대불·군산 산단 등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호남권에는 173개 산업단지에 6653개 사, 19만909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에 치중하다보니 혁신역량이 떨어지고 업체간 교류협력,

대학·연구소와의 지원 협력 네트워크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안으로 클러스터(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제기됐다.

◇생산 4.7배, 수출 3.5배, 고용 2배 성장=클러스터 사업은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지식기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클러스터 운영시스템인 '미니클러스터'를 가동해 기업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생산·수출·



지난 1991년 조성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생산과 연구, 교육,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산단이며, 국내 유일의 광산업클러스터다.

고용의 지속 성장을 꾀하고 있다.

사업추진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총 7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미니클러스터 회원으로 참여해 기술과 제 발굴, 기술포럼, 세미나 등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3000여건의 기업 공동 협력과 제를 발굴해 산학연 네트워크 형태로 추진했다.

참여기업의 생산·수출·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전국 산업단지 대비 지난해 참여기업들은 5년새 생산 4.7배, 수출 3.5배, 고용 2배 성장했다. 특히 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은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간 연계 등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 거점+34개 연계단지 네트워킹=호남권 광역 클러스터는 5개 거점단지(광주 첨단·평동의국인투자지구, 대불, 군산(군장), 익산, 완주)와 34개 연계단지(국가산단 1개, 일반산단 15개, 농공단지 18개)로 구성돼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기업과 현장 중심으로 △호남권 광역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운영 △시장창출형 특화 제품개발 네트워크 활성화(SM-FG) △특화산업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통합적 분위기 조성 △대의 교류협력 및 공동마케팅 활동 강화 △광역전문가(코디네이터) 인력 풀 구성·운영(700여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첨단산단은 '세계 5대 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군산은 '친환경 수송·기계부품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비전을 삼고 있다. 대불산단은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익산은 '친환경 운송장비·전기전자 부품 글로벌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사업 목표로 호남권 광역 클러스터 공동발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봉선3차 한국아텔리움’ 아파트 279가구 분양

새가구 친환경 LED조명…내일 1·2순위 청약

한국건설이 광주의 교육특구인 남구 봉선동 제석산 자락에 ‘봉선3차 한국아텔리움’ 아파트 279가구를 공급한다.〈조감도〉 ‘봉선3차 한국아텔리움’은 지하 2층, 지상 12~15층 6개동 279가구다. 전체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37평형)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제석산 자락에 있어 그 자체가 공원이다. 일조권과 통풍성을 고려해 남향위주의 설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소에 효과적인 친환경 LED조명을 전체 가구 거실과 공용공간에 적용했다. 또 편리한 동간 이동과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필로티 설계를 채택했다. 최상층은 아뜨리에, 놀이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락방 형태다. 인터넷 환경이 완비된 정보통신 1등급 예비 인증을 받았고, 첨

단 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집 밖에서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스·난방 밸브를 제어할 수 있다. 미등록차량을 통제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지 인근에는 문성중·고, 조



봉·불로초 등 명문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또 마트, 남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마련됐으며, 5일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6일 1·2순위, 7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계약은 18일부터 21일까지다. 분양 문의 1577-8733. /박정욱기자 jwpark@

경기침체에 기업 내년 설비투자 축소

정책금융공사 3251社 조사

불투명한 경제전망에 기업들이 내년 설비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책금융공사는 3251개 주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년 설비투자규모는 총 127조9000만원으로 올해 잠정치보다 1.4% 감소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대

기업이 각각 16.3%, 1%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는 “지난 3년간 설비투자를 주도한 대기업마저 투자를 줄이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투자 패러다임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생산설비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설비를 유지·보수해 사용하려는 경향도 커졌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는 올해 대비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제품 생산, 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는 각각 6.3%, 6.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설비투자가 5.2% 감소하고 비제조업은 3.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줄이는 이유로 ‘대내외 수요 부진(36.7%)’ ‘불확실한 경기 전망(35.6%)’ ‘자금부족(17.6%)’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경영 3년 연속 최우수

지정부 전국 18곳 평가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식경제부 주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지역산업 진흥계획’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종합경영 평가에서도 1위에 올라 전국 최고의 기업지원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광주테크노파크는 경영전략에서 사업관리시스템이 매우 우수하고, 사업부문에서도 지역혁신거점기능,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이전 성과,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의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월등한 평가를 기록했다.

종합성과 부문에서도 수요자 만족도, 정부·지자체 시책 기여도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국(사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은 “전 임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창조도시’를 선도하는 테크노파크’란 비전 아래 지정부 경영평가 로드맵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론타워 기능을 하는 기업 지원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999년 개원,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도 17개였던 입주기업 수가 현재 101개로 늘었고, 매출액도 50억원에서 1650억원 증가했다. 고용인원도 26명에서 1175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경협 광주·전남지회장 조애옥 한국에텍 대표

조애옥 한국에텍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제7대 회장에 조애옥(주)한국에텍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조 애옥은 내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취임식은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이다.

조 당선자는 “정부·지자체의 여성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활용해 회원사 수주기회 확대와 제품 판로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벤처·이노비즈 기업 발굴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일 이노비즈 포럼

광주와 대덕(대전), 대구 등 연구·개발(R&D)특구 3곳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6일 오후 4시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에서 ‘2012 광주특구 이노비즈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광주특구 출범 2년째를 맞아 산·학·연 기술사업화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특구에 대한 제언(양승화 호남대 교수) ▲특구벤처기업CEO 성공 사례(임상근(주)인텍플러스 대표·대덕특구기업)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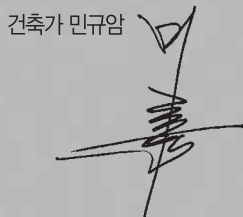
이어 연구개발특구펀드 소개 및 투자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르노삼성자동차

SM7을 타보고 난 후 조용함에 대한 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건축가 민규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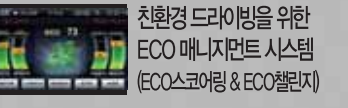
완성! 2013년형 SM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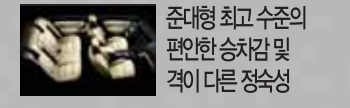
준대형 최초 적용,
최첨단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Blind Spot Warning System)



최상의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하는
SMart Connect



친환경 드라이브를 위한
ECO 매니지먼트 시스템
(ECO스모어링 & ECO힐링제)



준대형 최고 수준의
편안한 승차감 및
격이 다른 정숙성

장부공인표준연비 및 등급 ▶SM7 VQ25 배기량 2400cc 공차중량 1635kg 제동거리 연비 11.0km/l, CO₂배출량 229g/km 3등급 ▶SM7 VQ25 배기량 3400cc 공차중량 1840kg 제동거리 연비 9.8km/l, CO₂배출량 244g/km 4등급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및 장비상태 등에 따라 심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텔리센터 (089-300-3000 / 02-300-3000)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www.renaultsamsung.com



COPYRIGHT © 2012 RENAULT SAMSUNG MOTORS

삼성전자·전자부품연구원 등 국내 7곳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과 대학 등 7곳이 2012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2012 Top 100 Global Innovators)에 선정됐다.

금융정보회사인 토플스 로이터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과대 등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35.18 (-4.84)
▲ 코스닥지수	502.71 (+3.74)
금리 (국고채 3년)	2.84% (0.00)
▲ 원·달러 환율	1083.40원 (+0.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